소비자/가정관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이 승 신 (건국대학교 소비자 · 주거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가계의 제 1순위의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점점 심화되면서 과잉교육열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교육비의 지출 형태와 지출비용, 가계 총지출 중 사교육비의 비중, 자녀연령별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실태를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가계의 재정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 년도인 2000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용과 개인공통 data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 1950 가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를 보면 전혀 부담되지않는다가 0%이었으며 전체의 70%정도는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연령별로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의 평균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가 217,100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학생 174,600원, 초등학교 고학년 137,900원, 취학전 129,300원, 초등학교 저학년 118,3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광역시, 기타지역을 포함하였으므로 다른 연구보다 약간 낮은 액수가 나타났다.

또한 월 총생활비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이었으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월평균총소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9%로 나타났다.

가계경제적복지는 하위영역을 4가지로 (경제적어려움정도, 가족수입만족도, 전반적생활만족도, 주관적경제적수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반면 가족수입만족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가계의 경제적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총소비액이 높을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수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서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계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